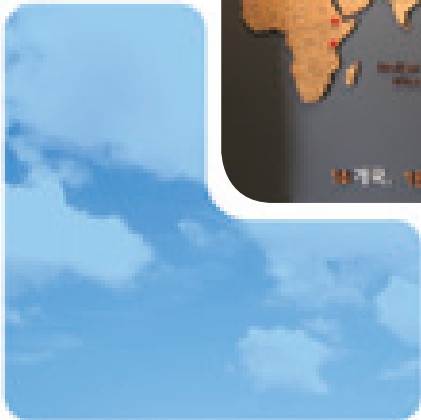


영암



Young-Ahm Presbyterian Church



부활절

사흘의 암흑을 깨고
충만한 사랑과
거룩의 옷을 입고
다시 오신 주님

하루하루
믿음의 열매 실하게 맺는 삶이
흐르는 감사의 선물입니다

오! 참빛 주님이시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 소망 사랑의 기쁨으로
부활의 역사를 나누게 하소서



최학용 명예권사

02	성시	부활절 · 최학용 명예권사
04	말씀의 샘물	우리 동네를 알고 계신가요?
06	선교편지	레바논에서 온 소식 · 장영배 김사랑 파송 선교사
09	황광은 목사님 기념	황광은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인터뷰 · 안태연 기자
12	교육부 사역 갤러리	갤러리
14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 고등부 황수미
15	사순절 통합교과	사순절 통합교과 가정예배 소감 · 이석재, 양미라, 이해나, 이수아 가정
16	특별새벽기도회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 이홍숙 권사
18	영암학당	사도행전과 나 · 서동화 안수집사
20	일대일양육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 신계영 집사
22	소모임 운동	다락방 소모임을 하며 · 박은아 성도
24	문화칼럼	인생을 새롭게 하는 라틴어 명언 세 가지 · 강진구 안수집사
26	교회 온라인 콘텐츠	소모임을 비롯한 교회 온라인 콘텐츠 소개
28	신임교역자 소개	얼굴을 맞대는 사이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 최에스겔 목사
29		가족같은 공동체 영암교회 · 서예림 목사
30		고등부 공동체를 향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임예제 목사
31		주님이 부르신 곳, 영암교회 · 고재국 목사
32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 송훈 전도사
33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 김영한 전도사
34	새가족 소개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38	영암소식	



우리 동네를 알고 계신가요?

-영암지 23년 봄 말씀의 샘물-



유상진 담임목사

영암교회가 안암동에 자리한지 70여년이 되어갑니다. 안암동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선교지입니다. 교회와 지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역에 관심을 두는 것은 선택이 아닌 사명입니다. 저는 이제야 안암동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아 우리교회는 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였습니다. 서울북노회가 속한 철원 동송지역 최고의 쌀인 오대쌀을 성도님들의 사랑을 담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취약계층에서 좋아하는 품목은 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쌀을 교환하는 쿠폰을 지금 받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란 것은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이 라면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라면 상자를 쌓아놓고 전달하는 것을 전형적인 생색내기라며 금기시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슈 우화에 여우와 학이 각각 접시와 호리병에 음식을 대접했던 것이 떠올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랑이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이웃이 진정 원하는 것을 헤아리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단지 이웃에게 시혜를 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 이웃이 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후부터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통해 어려운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고, 성도님들의 밀알헌금을 모아 한겨울에 원하는 전기요와 이불 세트를 안암동과 보문동에 전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 사회복지협의체)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아울러 현재는 주민자치회에서도 안암동의 현안과 필요를 파악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안암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암동을 위해 영암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역 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현장, 구청장실 등을 통해 마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수와 분포, 삶의 형편, 압도적 비율인 1인 가구, 단절된 채 고립된 청년들, 개발이 요원하기에 정체되어있는 분위기

등. 80대에서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위원들이 모여 지역과 주민에 관심과 사랑을 쏟는 열정을 보면서, 당장 현안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안암동을 향한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살아가고 있는 안암동에 전혀 무관심했던 안일함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소명’의 저자인 오스 기니스는, ‘당신의 주변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들 몇 명을 꾸준히 알고 지내는지’를 질문합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이웃 사랑을 실현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통, 반장에서부터 구의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양으로 지역 섬김을 실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역에 대한 관심과 섬김은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는 현재 안암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살고 계시는 ‘우리 동네’를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우리 동네에 한 발짝 다가서 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엔데믹 시대 우리가 품어야 할 자리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동네 사람들입니다. Y



레바논에서 온 소식



장영배 김사랑 선교사

안녕하세요? 장영배 김사랑 선교사입니다. 작년 11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축복 가운데 파송을 받고 아내와 함께 레바논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에 온 후 저희가 우리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있음을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레바논은요?

레바논은 성경에도 꽤 등장하는 곳이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쪽으로 이스라엘, 동쪽으로는 시리아와 접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니셨던 두로와 시돈이 레바논에 위치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레바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목적지였던 가난한 땅과 많이 중첩됩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땅답게 레바논은 다른 중동이 사막빛인 것과 달리 푸르고 아름다운 산과 멋진 지중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3000미터가 넘는 높은 산에는 만년설이 자리잡고 있고 백향목 숲으로도 유명한 만큼 이곳 레바논의 자연은 참 아름답습니다. 저희가 레바논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이지요. 종교적으로는 중동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톨릭, 개신교)의 비율이 40%나 되는 나라입니다. 프랑스 식

민지였던 역사로 인해 문화적으로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언어도 아랍어 뿐 아니라 불어와 영어도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레바논 상황

레바논은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래로 1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2020년 베이루트 폭발사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3-4년 사이에 환율이 60배 이상 오른 상태라는 점은 난민뿐 아니라 레바논 사람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대통령도 장기간 공석인데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불안정한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난민들 및 레바논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2019년 경제위기 초반과 달리, 현재 폭동이나 유혈 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안과 안전에 큰 문제는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이곳의 상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보내신 뜻을 잘 분별하고 참 순종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소망! 엘피스 클리닉

저는 작년 12월 중순부터 클리닉에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언어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사역 초기여서 진료는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뜻의 엘피스 클리닉은 수년 전 한국 선교사님에 의해 난민들을 위한 클리닉으로 세워졌습니다. 현재는 난민

들 뿐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없는 현지인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을 섬기시는 사역자들을 진료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도전!! 아랍어!

저희가 공부하는 아랍어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22개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아랍어는 지역과 나라마다 서로 다른 방언이 있고, 말하는 아랍어와 표준 아랍어가 달라서 배우기가 정말 까다로운 언어입니다. 레바논 공용어는 아랍어와 불어인데, 영어로 교육하는 학교들이 늘어 영어를 할 줄 아는 레바논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난민들은 영어도 불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난민들을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아랍어 공부 필수입니다. 매일 3시간의 언어수업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말하기 듣기부터 시작해서 최

근 오른쪽부터 쓰는 꼬부랑 글씨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운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통에 언제쯤 익숙해질까 싶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도 있습니다. 꾸준함과 성실함, 그리고 지혜를 위해 손모아 주세요.

나눔

선교지에 들어와 지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제가 참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 일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잘 안 살아져서, 제가 안 죽고 자꾸 살아나서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은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배우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열심히 훈련 받아서 나를 죽이고 또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침례)도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대단히 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죽기는 싫어하면서 부활의 영광만 누릴 수는 없다고... 이제 올바르게 믿으라고... 죽기를 두려워 말고 나오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노년에 여러 목사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셨다

는 이야기가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바로 믿고 있지 않아서 그렇구나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고 올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요. 이제 정말 바로 믿고 싶습니다.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다는 걸 다 아시면서도 저를 위해 죽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오늘도 주 앞에 나아 갑니다. 이제 저의 삶에서 제가 온전히 죽고 오직 주님만이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위해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 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Y



황광은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인터뷰



장지우 장로님과 함께

이 기사는 행사의 준비위원장인 장지우 장로님께 전화와 서면을 통해 진행된 인터뷰기사입니다. 오랜 동안 황목사님의 정신을 계승하여 애정을 가지고 준비해 주신 장로님의 답변을 들으며 교회 어른들의 내리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 장로님께서는 오랜 기간 황광은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헌신 하셨는데요. 황광은 목사님과는 어떤 관계이셨나요?

장 황목사님은 1960년도에 대광중.고 교목으로 1년간 계셨고, 당시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지요. 말씀이 재미있어서 매주 채플 시간이 기다려졌지요. 1961년도에 황목사님은 영암교회로 부임해가셨지만 그 후에도 학교 특별집회에 황목사님께서 초청되시어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66년경 황목사님을 찾아 영암교회에 출석하였고, 1970년 7월에 소천하시기까지 대략 5년간 교회에서 말씀의 꿀을 먹으며 대학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청년회(대학생회) 회장을 했고 중.고등부와 청년부 연합으로 매편수양관에 여름수련회를 갔는데 그때도 황

목사님과 함께 한 은혜로운 수련회였습니다.

안 어떻게 50여 년 전에 소천하신 목사님의 기념식을 기획하게 되셨나요?

장 훌륭한 목사님이셨기에 과거에도 10주기, 30주기 추모 예배를 우리교회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신장학회에서 기획한 것입니다. 은퇴 전 이니까 6년전쯤인데 제가 우신장학회 이사였지요. <사랑을 받느니 보다는 사랑을 주게 하소서> 황목사님의 일대기가 품절되었기에 재출판하여 교우들에게 나누어드리자고 우신장학회에서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판해서 배부하는 시점을 언제쯤 할까 의논하다가 당시 우신장학회 서기이사이신 송희락장로님께서 발의하셔서 2020년 7월 15일이 소천50주기가 되니 그때 추모예배를 드리면서 책을 배부하면 좋겠다고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준비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해 주셨습니다.

그 후 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2020년 3월경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오후 찬양예배가 모이지 못하게 되자 연기되어 2023년 2월 25일 탄생일의 전 주일인 2월 19일에 탄생100주년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이지요.

안 황광은 목사님의 일대기 <사랑을 받느니보다는 사랑을 주게 하소서> 책을 보면 목사님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삶을 실천하며 사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현대에 황광은 목사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분명히 의미있는 일을 하셨을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장 황목사님께서도 김유선사모님과 결혼서약(불쌍한 고아들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 결혼합시다)에서도 보여주듯이 교회목회 못지않게 고아원 사역에도 뜻을 두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人間 황광은〉 책 p.251하단~p.254 상단을 보면 생전에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기록이 있는데요, 기독교문화관을 건축하여 〈한국기독교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언론등 기독교 문화사업을 지원하는 기독교 문화센터를 계획하셨으니 이 시대의 젊은 이들의 소양과 소질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는 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 복지회〉를 창립하여 불우아동 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을 계획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 네. 살아계셨다면 현대에 맞게 문화사업과 노인 복지사업을 하셨을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황광은 목사님의 탄생 10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시면서 좋았

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장 좋았던 점은, 영락교회에 한경직목사님, 사랑의 교회에 옥한흠목사님이 계셨듯이 영암교회에는 황광은목사님이 계셨다는 것을 매스컴 (국민일보, 한국기독교공보, 한국장로신문과 기독교 방송국)과 유튜브 등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훌륭한 분이 영암교회 2대목사님이셨다는 것을 알리므로 영암교회 성도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준 계기가 된 줄 압니다. 〈人間 황광은〉 책 속에는 우리 교회 초창기 10년 역사(황광은목사님 시절)가 들어가 있고 우리 교회 설립자 김창결장로님의 황목사님에 대한 글이 상당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사진전과 기념식과 책을 통하여 우리 교회 초창기 역사를 조금이라도 교우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된 줄 압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회, 여전도회, 연합찬

양대, 어린이 합창단, 새가족부, 차량안내팀, 영상팀, 식당봉사팀등 온 교우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황광은목사님 기념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고, 황목사님 재직 당시 교우들을 초청하는 Home coming 행사를 겸할 수 있었음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웠던 점은, 추모회고사 연사가 많아서 기념식이 길어진 점이 죄송하고 아쉬웠던 점으로 남습니다만, 담임목사님께서 적극 밀어 주셨고 준비위원들이 잘 협력하여 별 아쉬움 없이 만족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안 저도 우신장학금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 장학금을 받을 때만 해도 어떤 분이 어떤 취지로 주셨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장학금을 받기 전 책을 한번 읽어 보았다면 어땠을까, 훨씬 자랑스럽고 공부도 열심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人間 황광은〉 책을 필독하고 간단한 소감문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황광은 목사님의 뜻이 담긴 우신장학금을 교회청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장 안집사도 우신 장학생이셨군요. 영암지 기자이면서 교회 학교 교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헌신과 봉사가 황목사님 정신의 계승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소감문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동안 황목사님의 일대기가 품절되고 없어서 대신 목사님의 설교집 〈성직자〉 책을 우신 장학생들에게 배부해 주기도 했는데 독후감을 쓰도록 하지는 못했지요. 금번에 황목사님의 일대기가 〈人間 황광은〉으로 재출판되었으니 우신 장학생들에게 필독하도록 하여 독

후감을 써 내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이번에 “황광은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라는 큰 행사를 치렀는데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황목사님의 유지를 계승하는 것이 될까요?

장 “기독교는 사람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라는 황목사님의 설교말씀이 떠오릅니다. 황목사님의 유지는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정신이지요, 좀더 구체적으로는 욕심을 내려놓고 나눔을 실천하는 삶, 약자를 배려하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 불의에 대항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와 교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복음과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 스카우트 정신으로 정직성, 용감성, 솔선수범과 희생정신, 애국심, 용서와 화합,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것을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념식을 지켜보면서 황광은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성도로서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념식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교회내부 기념행사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낭독회를 한다든지, 독후감 대회를 한다든지, 짧은 연극 경연대회를 한다든지요. 성경책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듯이 황광은 목사님을 기억할 수 있는 책과 장학회,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께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통해 황광은 목사님의 발자취가 계속 남기를 바랍니다. **Y**

〈안태연 기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등부 황수미

지금까지 수련회를 여러번 갔었지만 딱히 은혜가 되고 마음에 간직되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에서는 모든 것들과 모든 시간들이 마음속에 깊게 새기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던 도중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미워한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많이 슬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두가 귀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련회 때 품은 이 마음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Y



사순절 통합교과 가정예배 소감



이석재, 양미라, 이해나,
이수아 가정

저희는 작년 9월 초에 이사를 와서 9월 말 부터 영암교회에 출석하였고, 올해 1월 1일 주일에 새가족으로 등록한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은 매 주일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부터 아이들까지 각자 주일 예배 말씀 내용과 받은 은혜 등을 서로 나누는 후 마무리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기도를 돌아가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있어서, 먼저 지난 11월에 교회에서 배포해 주셨던 대림절 말씀묵상 원포인트 통합교과는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주 주일 저녁 원포인트 통합교과를 펼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며 저희 부부와 아이들이 주일예배에 들었던 말씀을 나누었는데, 특히 아이들이 낮에 들은 설교를 한 번 듣고 그냥 잊는게 아니라 부모와 함께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며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막연히 성탄절 만을 기다리던 아이들도 네 번의 대림절을 거쳐가며 성탄절을 더욱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말씀 묵상의 경우에도 대림절 말씀 묵상을 매주 진행하며 성탄절을 기다렸듯이, 이전에는 막연히 '사순절 지나면 부활주일' 이라고만 생각했던 사순절 기간을 사순절의 주일들을 하나씩 거쳐 종려 주일을 지나 부활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의미가 더욱 크게 와 닿았습니다. 특히 해당 성경구절의 내용과 매칭되어 들어간 명화들은 온 가족이 말씀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글자로 묘사된 장면들이 15~19세기 화가들의 그림을 통해서 표현된 장면을 보면서 성경 속의 사건들을 아이들과 함께 생생하게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성경을 텍스트로만 읽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점도 의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양의 문'은 그냥 성경만 읽어서는 그다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지만, 2천 년 전 중동지역의 양치기가 양들을 밤새 보호하기 위해 돌담을 쌓고 스스로 '문'이 되어 양들을 보호해주는 모습을 아이들과 함께 상상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영암교회에 출석한지 이제 반 년 조금 지났는데, 두 번의 원포인트 통합교과를 통해 가정예배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교회 전체의 절기 예배들이 어린 이들에게 장년부까지 같은 본문과 메시지가 관통하는 것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교회의 절기들과 예배들과 그 말씀들을 통해 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Y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이흥숙 권사

삶이 멈춰지니 자기 내면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팬데믹으로 멈춰진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느 사이에 유튜브를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시작된 4월 3일~7일까지 있었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믿음)을 살펴보는 중요한 예배가 되었다.

시기, 분노, 탐욕, 식탐, 정욕 5가지의 제목으로 새벽예배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는 남이 잘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시기하지는 않는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시기함으로 은혜를 원망하는 마음이 자리한다.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에 따라서 나에게 맡겨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분깃을 거부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나의 죄성을 인정할 때 나의 상처 입은 마음은 햇살과 같은 사랑을 받으며 십자가의 치료가 임하며 감사가 나온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분노는 최소한의 나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다 분노는 기도를 방해한다. 분노는 영혼을 어둡게 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분노는 우리의 세 치 혀에서 시작된다. 분노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었던 분노의 감정을 생각해 보았다. 영혼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흔들렸던 기억들...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약 1:19 하반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엡 12:19)

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기도했을 때 비로

소 마음의 편안함이 임하는 것을 느꼈다.

탐욕은 과도한 욕망이며 헛된 것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은 탐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탐욕을 벗어나기 위한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재정을 맡기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식탐은 왜 죄가 될까?

말씀을 들으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식탐은 채워지지 않은 갈망을 채우는 것이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 정신적 육체적 갈망을 음식으로 채운다면 과연 우리의 몸은 과연 어떻게 될까?

욕심으로 내 몸을 채우는 식탐이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니 절제가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다.

정욕은 통제하기 어려운 성욕이다.

성욕은 부부간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인격적인 사귄 안에서 주신 선물이다. 정욕은 물리치기 어려운 욕망이다. 정욕은 믿음이 나태해질 때 시작된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잠 6:27-29)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 부터 나온다.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주의해야 한다.

5일 간 있었던 새벽기도회는 그동안 살펴보지 못한 내면을 살펴보는 중요한 예배였다.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삶과 믿음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마감한다. Y

사도행전과 나



서동화 안수집사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한 성령님의 활동이 적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여러 부분들을 만나보면서 그 시대에서 그 시대에 맞는 일들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만 가지고는 사도행전을 잘 이해할 수 없고, 만세 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통일되어지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내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때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 또 계속해서 그 소문이 이어져갔을 때에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였을지 이 또한 의문을 가져 봅니다. 그와 함께 베드로의 신앙이 완성되기까지의 시간들,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구약 말씀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생긴 혼란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이해의 완성까지는 얼마만한 시간이 필요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베드로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실천과 실행력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쳤을까 또 바울의 믿음과 신앙의 간격이 좁아졌을 때에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예측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오늘날 반만년의 역사를 지내고 있던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셨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엡1:11)라고 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 없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3:11) 라고 하셨으며, 마지막날까지 이어져갈 신앙과 믿음에 대한 성령의 활동하심에 대하여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를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사46:11하) 하신 말씀과 함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40: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 5:18) 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그 민족으로 이루며 가시는 역사적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신앙으로 영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민해 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의 시작이 출발되고 마무리됨에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렘5:24),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24:21-22) 라는 말씀으로 추수기한을 정하시고, 택하심에 대하여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18:19),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사43:10)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의 능력으로 영광을 나타내실 그 때에 대해서 때가 이르면 못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사66:18하) 말씀을 주셨으니 모든 민족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소망을 품어 보며 여기서 줄입니다.

2023. 5. 18 새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신계영 집사

어느 날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길학철 장로님께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일대일 제자 양육 성경공부를 하는데 할 생각이 있나요? 코로나 상황이라 만나서 하는 건 아니고 온라인으로 만나면 됩니다.” 순간 저는 머리 속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준비 중인 시험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세 명의 자녀는 항상 저를 찾았기에 하루 24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장로님께는 바로 답을 드리지 못하고 생각해 보고 연락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통화 내용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아내는 “하나님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무엇을 고민하느냐”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기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장로님께 함께 하겠다고 전화를 한 후에 전화를 끊고 “16주라는 긴 시간을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까? 장로님께 민폐를 끼치는건 아닐까?” 여러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시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다 이유가 있을꺼야”라고 생각하며 일대일 제자 양육 성경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하였고,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지키고 세상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못한 행동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쁜 일상과 아이 셋의 양육 그리고 준비하는 공부까지, 너무도 바쁘게 지내니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신앙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

는 생각을 하며 저를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는 교회와 세상 속의 나 자신이 너무도 다른 모습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 일대일 양육과정을 시작하며 빨리 잘 마치는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양육과정 시작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를 비롯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를 배우며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고 예수님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대일 양육과정을 통해 알에서 깨어나는 신앙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대일 양육과정 중 몇번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처음 교육을 시작할 쯤 저희 아이들은 저와 잠시도 떨어져 있지 못하고 자꾸 방에 들어와 방해를 하였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혼자 있는데 누구와 이야기 하는 것 같아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번갈아가며 양육과정에 함께 참여하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잠겼지만 아이들의 아우성에 장로님께서 괜찮으시다며 아이들과 인사도 해주시고 대화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육의 시작이나 끝에 아이들이 장로님과 인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일대일 양육과정에 대해 이 시간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의 그런모습을 좋게 보며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의 자세를 보여준 것 같아 보람이 있었습니다. 일대일 양육과정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뉘이 이어질수록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였나?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 살았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저를 돌이켜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던 삶을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며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

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이웃과 선한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시험을 이기기, 주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전도가 거창하고 대단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전도에 대한 나눔을 통해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전도의 방법은 설득이나 설명이 아니라 증거이며 선포라는 내용을 들으며 내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행동 하나에도 모범이 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알며 증거할 수 있는 많은 성경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매순간 느끼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아 쉽게 넘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로 간구하며, 죄를 회개하고 마귀가 주는 죄 의식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회개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사역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시절 지금은 장로님, 권사님이신 많은 분들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로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보며 나도 성장해서 섬기며 사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때는 사역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역은 모든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이고 올바른 사역을 위해서는 성경적인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성도는 교회이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사역자라고 합니다. 은사는 사역의 도구이며 수단이라는 생각으로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교회학교, 성가대, 주차봉사, 식당 봉사 등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역을 하기엔 조금 힘든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처한 상황만을 바라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 할지를 고민하고 결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대일 훈련을 마치며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16주라는 긴 시간 동안 수고하시고 저희 아이들을 사랑해주신 장로님 내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저의 모습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일대일 훈련을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Y**



다락방 소모임을 하며



박은아 성도

작년 2022년 3월의 봄날, 다락방의 소속원으로는 처음으로 김성은 권사님을 비롯하여, 이승경 집사님, 이선희 집사님, 이명숙 집사님과 함께 온라인 모임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영상으로 마주 뵈는 집사님들과 자기소개 그리고 첫 모임이 이루어졌다.

불혹이 훌쩍 넘은 나이가 되어도 늘 첫 만남은 잘 보이고 싶어서 설레임 반, 실망 할까 봐 긴장 반이다. 그러나 이처럼 긴장되는 경계의 마음이 사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리는 소개와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그날의 소모임 주제에 대해 꽤나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 의견을 주고받았다. 사실 지금 그 주제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리고 나는 우리 공동체의 공통점을 알았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부끄럽지만 나를 소개한다면 나는 함께 사는 모친의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모친의 아픔을 헤아리기에 앞서 겪어보지 않은 두려움에 웅크리고 떨고 있었다. 그 때에 함께 하신 다락방 모임분들께서 경청해주시고 진심으로 나와 나의 모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다. 각자의 십자가가 제일 힘들고 버겁다며 모니터 너머로 응원의 목소리가 들릴 때 마다 웅크린 마음과 어깨가 펴지기 시작했다. 처음보는 사람 앞에서 나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나보다. 1년전 나는 오늘보다 좀 더 어렸으니까.

그리고 집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알았다. 나의 삶에 대한 아픔 수위가 '3' 이라면, 집사님이며 인생 언니들의 고통수위는 최고의 '10' 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삶을 감사하는 모습에서 그 믿음의 성숙된 모습 앞에서 겸손을 배운다. (물론 나는 아직 부족하여 신실하게 실천하는 단계는 아님을 알고 있다.) 나는 다락방 모임을 통해 얻게 된 사랑하고 싶은 이웃을 통해, 매주 주어진 주제를 통해,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다 또렷하고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을 배웠다. 가능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문제 삼지 않고 그 문제를 대하는 나를 보려 한다. 진정 하나님이 지켜보기에든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는 다락방 소모임의 소통을 통해 피드백도 받으며 스스로 말씀의 잣대를 거울삼아 비춰본다. '나는 바른 생활 자세인가?' 하는 질문에 많이 부족함을 확인하고는 작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임을 통해 바르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행동하기를 다짐한다.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드린

다. 이렇게 반복되는 훈련에서 나는 괜찮은 기독교인이 되어 가길 소원한다.

또한 우리의 다락방 모임은 은근 다양한 야외활동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났다. 지난가을 송현공원, 공원 가득 작은 해바라기가 예쁘게 피었을 때 함께 꽃밭으로 답소를 나누며 다락방 소모임 모두가 함께 처음 얼굴을 마주하며 반가움을 나누었다. 그리고 월곡동 맛집에서도 최 석빈 목사님과 함께하시어 모임의 친목을 자랑하기도 했다. 올 봄의 어느 좋은 날 일찍 핀 개나리마저 반기는 인천으로 이사하신 이명숙 집사님 댁에서 올해 첫 대심방을 맞으며, 준비하신 집 밥에 대심방이 얼마나 좋은 지 알게 되었다. 늘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도록 훈련하고 일상의 습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는 다락방 모임으로 인해 나 또한 사랑과 감사를 주는 법을 배워 감에 감사한다.

감사와 은혜로 가득한 우리의 다락방 모임이 많은 기도와 믿음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글을 마친다. Y



아틀리에 메멘토 모리①

인생을 새롭게 하는 라틴어 명언 세 가지



강진구 안수집사
(고신대 국제문화
선교학과 교수,
영화평론가)

지난 4월 24일 오후 시간에 진행되었던 ‘북콘서트’에 초청되어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암교회 성도님들과 ‘죽음’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일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장경철 목사님과 서울여대에서 팀티칭으로 ‘죽음과 종교’를 강의를 시작한 해가 1997년부터이니 벌써 27년째 이르렀습니다. 죽음학 강의를 진행되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고 한국사회에 나누고 싶은 얘기도 쌓여만 갔습니다. 이 글은 지난 시간에 꼭 하고 싶었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카르페 디엠 Carpe Diem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Dead Poets Society, 1989)에서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준 말입니다. 명문대학 진학을 위해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는 상류층 학생들이 미래의 성공에 매몰되어 청춘이 오늘 누려야 할 낭만과 자유를 잃어버린 채 남이 쓴 문학해설서를 신주단지 받들 듯이 여기는 현실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은 농사에 관련된 은유로서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쓴 송가(頌歌)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낱구입니다. 흔히 ‘오늘 하루를 즐겨라’라는 다소 쾌락주의적인 뜻으로 해석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라틴어 전문가인 한동일 교수는 그의 책 <라틴어 수업>에서 시의 문맥상 ‘내일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고 오늘에 의미를 두고 살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인들은 미래 지향적 삶을 찬양하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등의 현실을 희생시켜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의지는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희생시키며 얻으려는 미래는 과연 장밋빛일까요? 양질의 직장에 취업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결혼과 애 낳기를 포기하는 N포 세대는 점점 한국사회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월급쟁이가 서울에서 그럴듯한 집 한 채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 안 쓰고 14년을 모아야지만 가능한 실정입니다.(국토교통부, ‘2021년 주거실태조사’) 오늘을 희생시켜서 얻는 내일이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라면 ‘지금 살아가는 법’을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카르페 디엠’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Memento Mori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개선식에는 특이한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며 시내를 행진하는데, 이때 마차에는 노예 한 명이 장군과 같이 탑승하여 끊임없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장군이 듣도록 속삭였던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열렬히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에서 장군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자신이 신이라도 된 듯 착각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가장 비천한 신분의 노예가 들려준 ‘메멘토 모리’는 자칫 교만과 허영에 들뜨기 쉬운 장군의 마음을 정돈시키며 겸손하고 정중한 자세를 취하게 만

듭니다. 이번 전쟁에는 어찌어찌해서 승리할 수 있겠는지 모르지만, 다음번 전쟁에 나갔을 때 이기고 살아 돌아온다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메멘토 모리’는 한국에 ‘웰 다잉(Well-Dying)’이 소개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품위 있는 죽음’ 혹은 ‘행복한 죽음’을 추구하는 ‘웰 다잉’의 전제 조건은 바로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불안이 주는 지혜>(The Wisdom of Insecurity)의 저자이며 신학자인 앨런 와츠(Alan W. Watts)는 ‘생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보다 더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 중요하며,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숙고하며 삶을 성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모르 파티 Amor Fati

김연자 가수의 신나는 댄스곡 ‘아모르 파티’는 해석의 오해를 껴안으면서도 지금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TV 자막으로는 라틴어 자막이 나오지 않는 까닭에 ‘파티(party)를 사랑해라’는 뜻으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음악 중간에는 무희들이 나와서 신나게 춤을 추고, 라이브 무대공연 때는 관중들과 집단 군무를 추는 일이 흔하다 보니 ‘파티를 즐기자’란 뜻으로 오해받기 쉬웠던 것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하라(Love of fate)’ 혹은 ‘운명애(運命愛)’의 뜻으로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저서<즐거운 학문>에서 사용하여 유명해진 명구입니다. 그러나 니체가 책에서 말한 ‘운명’은 흔히 신분과 계급이 정해졌던 봉건사회의 자조적인 운명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운명에 굴복하거나 순응하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긍정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말을 남길 만큼 기독교에 도전적이었지만, 종교에 귀의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인간다운 길임을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삶을 회피하

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요 ‘아모르 파티’의 가사는 댄스곡 답지 않게 인생이란 현실을 관조(觀照)하고 있습니다.

‘산다는게 다 그런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 하지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현대 한국인들이 가요 ‘아모르 파티’를 좋아하는 것은 가사로부터 받는 인생의 위로가 적지 않게 마음에 다가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경쟁적이며 성공지상주의에 내몰린 자신을 돌아보며 무언가 긍정의 힘이 필요했으리라 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데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 그리고 ‘아모르 파티’를 한꺼번에 아우르며 인생의 답을 제시하는 기독교 노래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아이라 스탠필(Ira Stanphill) 목사의 곡에 안이숙 사모가 의역한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는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이 찬양은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 그리고 ‘아모르 파티’에 빠진 현대인들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카르페 디엠’이 쾌락주의로 빠지지 않고, ‘메멘토 모리’가 비관주의에 시들지 않으며, ‘아모르 파티’가 현대인을 인본주의적 운명론으로 이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라틴어 명언의 출처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라틴어 명언들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현대인들의 마음을 진정 위로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Y**

소모임을 비롯한 교회 온라인 콘텐츠 소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다. 그 중에서도 매주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며 봉사하던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교회생활은 ‘거리두기’라는 네 글자에 의해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 국교회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모으며 함께 예배도 드리는 신앙생활의 대안을 찾아냈다. 우리 영암교회 역시 많은 부분에서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였고 그 편의성으로 인해 이제는 온라인 콘텐츠들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앤데미 단계에 들어선 후로 대면예배와 모임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며, 오랫동안 서로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던 성도들이 다시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

단 이러한 추세 속에서도 지난 3년간 우리는 비대면 매체의 이점을 경험하였고 그 편의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전에는 시간과 거리, 장소 등의 제약으로 접하지 못했던 콘텐츠에 더욱 많은 영암의 식구들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영암의 온라인 콘텐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되는 콘텐츠들 중 대면모임을 통해 실행되는 콘텐츠들은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선이고 사정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온라인 송출

팬데믹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에서 가장 서둘러 온라인화 시킨 것이 주일예배를 비롯한 예배들의 온라인 영상으로의 변환이었다.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에도 영암교회는 주일예배를 온라인 실시간 송출하고 있으며, 매주 2,3부 예배를 주일 하루동안 전체 영상

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드릴 수 있게 해놓았다. 주일이 지나면 설교영상만 업로드된다. 아울러 월-토까지의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또한 온라인으로 송출된다.

또한 각 찬양대 찬양 영상, 특별예배 영상들도 홈페이지의 영상자료실을 통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하였다.

영암학당

대면모임이 어려워진 때에 예배 외의 양육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우리교회는 기존의 영암학당을 온라인화하여 2020년부터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영상화하여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열두 예언자와 함께』에서 선지서를 다루며 『소요리문답, 믿음과 고백』을 통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365성경통독』을 위한 각 권별 개요를 통해 성경 전체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영암학당을 촬영하여 그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하였다. 『거룩한 산책(레위기19장)』, 『다시쓰는 성도행전』, 『시편산책』, 『성경66권, 하나의 이야기』 등이 현재 업로드되어 있다.

향존직피택자 영상교육

2019년에 있었던 향존직 선거 이후 진행될 피택자 교육을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택자교육 또한 영상으로 만들었다. 현재 그 다음 기수의 피택자들이 듣고 있는 대면 교육의 촬영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고 있으며 기존의 영상과 함께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향존직들의 자세와 역할에 대하여 양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소모임 리더(구역지도자, 다락방장, 남녀소그룹, 큐티방장) 온라인 모임

팬데믹 시대에서 가장 우려되었던 문제로 대면예배와 더불어 구역 돌봄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소모임 리더들의 헌신과 돌봄이었으며, 리더 모임을 위한 비대면 모임의 필요가 요구되었다. 우리교회에서는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리더모임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전 각 구역지도자와 다락방장, 남녀 소그룹 리더, 큐티방장들이 줌으로 모여 말씀을 듣고 삶을 나누며 각 구역의 상황들을 공유하고 있다.

온라인 비대면 매체를 활용한 소모임

서로 직접 대면하여 만나지 못했던 시기 동안 영암교회에서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비대면 모임을 장려하였다. 이를 위한 기술적인 지원으로 줌,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일상회복의 단계로 들어서서 대면 모임도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거리와 시간의 제약은 존재한다. 특히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교우들, 주중에 시간이 맞지 않아 모이기 어려운 직장인들, 이동하기가 불편하거나 질병 감염

의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들의 경우 대면으로 모이고 싶어도 그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전히 온라인 매체들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교우들은 온라인의 공간을 통해 구역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며, 기도제목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온라인 비대면 매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성도의 교제를 위해 사용되기를 기대해본다.

(※ 결론)

팬데믹의 재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와 함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대면 예배와 모임의 소중함에 대해 일깨워주었다. 또한 많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다양한 예배와 양육, 모임의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이제 우리는 앤데믹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재난이 언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방식들을 통해 우리 영암교회의 예배와 양육, 공동체와 모임들이 더욱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서우진 목사 정리〉

얼굴을 맞대는 사이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에스겔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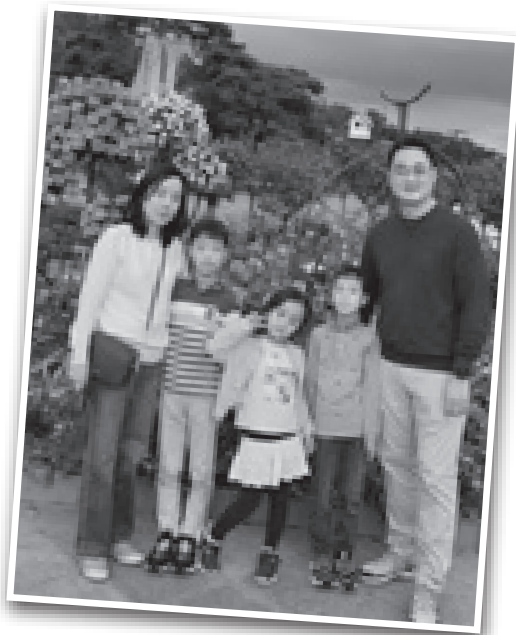
살롱! 최에스겔 목사입니다. 영암지를 통해 이렇게 영암교회의 성도님들께 뒤흔은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중인 작년 1월 영암교회에 부임을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았고, 그나마 교회에서 뵈어도 마스크로 얼굴

의 절반은 가려진 채 첫 만남을 가졌던 어색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대면 전화 심방, 줌(Zoom) 온라인 모임도 지나간 추억이 되어 성도님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는 사이로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음에 정말로 감사할 뿐입니다.

먼저 저희 가족을 소개하면, 신대원에서 만나 결혼하게 된 아내 곽나니 사모와 시원(12), 재원(10), 예원(7) 두 아들과 막내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요즘 같은 출산율 최저 시대에 세 자녀를 둔 애국가라는 칭찬을 듣기도 하지만 부모로서 세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늘 부족함을 절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쑥쑥 자라가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영암교회에 오기 전 분당에 있는 아름다운교회에서 부목사로 8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였고 한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부서와 다양한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한 식구와 같이 정도 많이 들었고 기쁨과 보람된 시간, 원치 않는 고난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진흥과 같은 저를 목회자로서 아름답게 빚어 가시기 위한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암교회에서 이렇게 새로운 목회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와 좋은 동역자들과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심을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좋은 만남과 시간들을 통해 앞으로 새롭게 이루어 가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부임한지 2년째가 되었지만 제가 맡고 있는 교구와 부서가 아닌 교우들은 아직도 얼굴을 맞대어 대화를 나누고 뵈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가족처럼 더 가깝게 그리고 더 친근하게 성도님들께 다가가 함께 사역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Y



가족같은 공동체 영암교회



서예림 목사

살롱!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저는 영암교회의 다음 세대인 소중한 영유아부 아이들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서예림 목사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

년 12월 첫 주일 새벽, 영암교회에 첫걸음을 딛던 날이 아직

도 눈에 선합니다. 보문역에 내려 성북천을 따라 하얀색 영암교회 십자가를 향해 걷은 지도 어느덧 2년. 영암교회에서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저에게 이곳에서의 시간은 따뜻함과 선선한 바람, 생명과 생기가 공존하는 봄과 같았습니다. 좋은 교역자 공동체와 사랑 많은 영유아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음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여수 밤바다’로 유명한 여수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신대원 진학을 위해 서울로 상경했고, 영락교회와 잠실 주님의교회를 거쳐 이곳 영암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 역사에 관심이 많아 현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 박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영암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임할 때만 해도 극심한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교사와 부모, 아이들까지 약 30명의 인원이 드림센터 4층 영유아부실에 한데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모였던 작년 2022년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는 영암교회에서의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늘 당연하고 마땅했던 주일 예배와 여름성경학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 일상이 멈추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당연하고 마땅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 있고 일상 속 삶의 무게는 매일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지만 그런데도 추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을 보게 하시고, 메마른 가지에 새싹을 돌아나게 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살아낼 소망과 위로를 발견합니다.

저는 매주 영유아부 공동체 속에서 작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예배실을 가득 메우는 아이들의 웃음과 찬양 소리, 귀한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 부모님들의 신뢰와 애정 속에서 우리 영유아부 공동체는 작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암교회의 미래인 작지만, 절대 작지 않고 약하지만, 절대 약하지 않은 소중한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은 모든 영암교회 성도님의 기도와 사랑을 먹으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선생님들, 믿음의 자녀를 기르는 중요한 일에 부름을 받은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참 행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암의 모든 성도님께서도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참된 행복에 이르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

고등부 공동체를 향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예제 목사

안녕하세요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작년 1월부터 영암교회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임예제 목사입니다.

저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관’이라는 이름은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고 ‘예제’라는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각각의 뜻을 보면 ‘영관’은 해엄칠 영(泳), 너그러운 관(寬)이라는 뜻으로 돌림자인 영을 제외하고 너그럽게 살아가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제’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호적에 올리신 이름인 ‘영관’으로 살고 있었지만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기에는 부모님께서 지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예제’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영암교회 고등부 공동체에 함께 할 때 주신 마음은 귀한 청소년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아이들과 교제하며 제자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제가 더 열심히 뛰겠지만 영암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무엇보다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주시고 기도해주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고등부 공동체를 향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

주님이 부르신 곳, 영암교회-



고재국 목사

안녕하세요. 올해 영암교회 초등2부로 부름받은 고재국 목사입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일은 설렘이 일어나는 일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걱정스러움이 자리 잡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낯선 곳인 영암교회로 가는 길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임 첫날 예배 때 찬양대 찬양에서 시작해서 담임목사님의 설교로 이어지는 모든 순간이 감동과 감격, 은혜로 다가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주중에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나오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응답하는 의미에서 얼마 전 서린(西隣)법률사무소를 열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며 법조문과 판례만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확정 짓고 징계처분을 결정하는 것을 경계하고, 피해학생의 아픔이 치유되어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과 가해학생이 학교 교육에서 배제되기 보다는 올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뿐 아니라 가해학생 역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마땅히 사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큰 아들이 다섯 살 때 소아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아산병원 소아혈액종양병동에 들어서면서 달라졌습니다. 버킷리스트 4기에 암이 발견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병동에서 만난 아이들은 누구 하나 저희 아이보다 더 아프지 않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병실을 썼던 예쁜 소녀가 밤새 고통을 호소할 때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보다 더 힘을 내 기도했고, 처음으로 받은 변호사 선임료 전부를 장기 투병 중인 아이의 가족에게 기부하였습니다. 지금도 저희 가족은 아산병원 소아암병동에 지정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회복되었지만 예쁜 소녀와 장기 투병하던 아이는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아들을 회복시키시며 저희 가족에게 주신 뜻은 때를 잃어버리기 전에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저를 영암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초등2부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Y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송훈 전도사

살롬!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저는 올해 1월 말부터 청년공동체 사역을 시작한 송훈 전도사입니다. 우선 저를 처음 만나는 성도님들은 저를 전도사라고 부르기가 적잖이 부담스러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대 중반인 나이에, 게다가 전도사라고 불리기 시작한 지 20년이 넘어가기에 “아직까지 안수를 안받으시고 뭐하셨지?”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평생의 소명을 목회자가 되는 것으로 삼고 이후의 진로를 해외에 유학하여 신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등학교부터 독립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이 하나님께서 오로지 이끄시는 순례자의 삶이라고 여기며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해병대 장교로 포항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고 미국의 보스턴에서, 영국의 에딘버러의 대학원에서 교회사를 전공하며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기묘한 방식으로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경륜은 저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주셨습니다. 저는 2011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딸, 그리고 4학년의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인내,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현재는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현대사회와 기독교윤리”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사회 청년들과 소통하며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영암교회의 청년공동체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가장 힘들다는 사역자들의 토로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본인들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한국교회의 현실에 실망하고 있고, 미래가 불투명한 대한민국의 상황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의 길이며 청년을 비롯한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의 희망임을 가르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암의 청년들을 위해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로,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격려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과 저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며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김영한 전도사

안녕하세요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초등1부를 섬기고 있는 김영한 전도사입니다. 어느덧 영암교회에 온지 1년 하고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부모님 목회를 따라 거창에서 6년, 울산에서 2년, 대구에서 19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뒤 혼자 서울에 올라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졸업하고 영암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자녀로서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시절 철학을 공부하던 저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답을 찾지 못함에서 오는 좌절, 멈추지 않던 의심과 질문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출 3:14)’라는 말씀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다른 어떤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고백하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사건과 응답을 통해 목회를 하기로 결심한 후, 하나님께 제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여쭙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사 58:12)’라는 말씀을 주시며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라”는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초등1부를 섬기면서 존경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사랑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느끼며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암교회를 통해, 우리 초등1부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 속 무너진 데를 보수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우리 초등1부 공동체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구한속
(3여 삼선)



김미진
(청년)



김용길
(여호수아회 안암1)



김향화
(7녀 보문4)



박성주
(청년)



박주완
(청년)



이경훈
(3남 일산)



이미지
(7여 다락방19)



이상민
(청년)



장기정
(유니게회 보문3)



장혜원
(7여 다락방5)



전해진
(청년)



정 경 숙
(5여 공릉)



지 금 성
(5여 공릉)



진 용 군
(6남 다락방2)



강 동 군
(청년)



강 민 아
(청년)



김 미 숙
(4여 다락방9)



김 은 희
(3여 보문6)



김 장 임
(유니게회 보문7)



김 정 숙
(2여 용두)



김 종 국
(청년)



류 호 은
(다락방18)



민 다 희
(다락방18)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박영훈
(4남 안암6)



박지후
(7여 보문4)



박진희
(6남 동소문)



백순선
(한나회 안암5)



송월섭
(마리아회 안암1)



양미라
(7여 다락방19)



유수빈
(7여 다락방18)



유승우
(6남 다락방19)



유영민
(6남 다락방18)



은부기
(베드로회 안암8)



이석재
(6남 다락방19)



이원정
(7여 다락방18)



전미자
(5여 삼선)



정기남
(유니게희 안암8)



정은주
(7여 안암6)



[2021년]

새해맞이 특별새벽기도회(온라인) “믿음으로(히11:1-2)”: 1월 4-9일

은퇴식, 신입제직임명, 제직수련회 2월 7일(주)

• 은퇴자

안수집사-조장하 이상호 홍수봉 구완서

권사- 김혜선 정선례 홍윤 왕명숙

영암학당 영상강좌 (소요리문답, 믿음과 고백2): 3월 3일(주)

세례입교식 3월 21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눅22:46): 3월 29일-4월 30일

부활절 사랑의 케이크 나눔(성북구교회연합회) 4월 7일(주)

유아세례식 5월 2일(주)

추수감사절 찬양한마당 음악회 10월 10일

가을 온라인 특별새벽기도회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신33:3)”: 10월 18일-23일

가을 신앙사경회 “상처입은 치유자”(이동원목사): 11월 10일-12일

창립 67주년 기념주일 11월 14일(주)

성탄절 예배, 유아세례식 12월 25일(토)

[2022년]

영암교회 1인1소모임운동 시작 1월 2일(주)

향존직은퇴예식 및 신입제직임명 1월 2일(주)

• 은퇴자

장로-이정진, 이철수

안수집사-이윤주, 이종교, 유옥중, 이천순(협동)

권사-엄난순, 강미량, 서경희, 이순남, 이은숙, 이인숙, 배동화

제직수련회, 장로헌신예배

(강사: 정영택목사), 비대면매체 활용교육: 2월 6일(주)

사순절 긴급구호헌금(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산불피해)

17,575,000원: 3월 13일-27일

세례입교식 4월 3일(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죽었다가 살아났으며(눅15:32)’: 4월 11일-15일

주일 1부예배 재개 6월 5일(주)

교육부 전면 현장예배 재개, 해피파티 6월 5일(주)

찬양대 찬양 재개 7월 3일(주)

서울북노회 포천시찰 새창교회(가재규목사)를 위한 긴급구호

1500만원: 9월 18일-25일

추수감사주일 찬양한마당 10월 9일(주)

늘푸른대학 가을소풍 10월 20일(목)

가을 특별새벽기도회

“그 힘의 능력으로(엡6:13-17)”: 10월 24일-28일

사경회 “회복” (백동조목사, 목포사랑의교회) 11월 2-4일

장영배 · 김사랑선교사 파송식(레바논) 11월 6일(주)

교회창립68주년 기념주일 11월 13일(주)

향존직투표 11월 13일(주)

· 피택장로: 이관택 유준수 김민영 노용택

· 피택안수집사: 최낙조 최정원 하태철 이동일2 김봉기 박봉근

남민관 오흥영 강윤중 장영준

· 피택권사: 정혜자 김희영1 김정례2 안경원 유부연 김지연1

조은희1 김수연 윤옥수 이선희1 성외경 황은옥 김선경

손미선 이영 박희경 박정희 김주는 윤태주 염미경

성탄주일 유아세례식, 성탄축하발표회 12월 25일(주)

[2023년]

향존직은퇴예식 및 신입제직임명 1월 1일(주)

• 은퇴자

장로-송희락 정연안 안수집사-김명환

권사-장순영 이순자 황명옥 정규재 김영숙 홍정심 최지원

새해맞이특별새벽기도회” “기억하시는 하나님”: 1월 3-5일

튀르키예 · 시리아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구호 2월 12일-19일

故우신 황광은목사 탄생100주년 기념식 2월 19일(주)

영암학당 봄학기 3월 5일(주)

“다시 쓰는 성도행전” 최에스겔목사, “시편 산책” 임예제목사,

“성경66권 하나의 이야기” 김영한전도사

삼일절 기념예배 3월1일(수)

늘푸른대학 봄학기 3월 22일(수)-4월 12일(수)

성찬식 4월 2일(주)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 4월 3일-7일

로뎀문화교실 4월 15일-5월 20일

부활주일 축하찬양 4월 9일(주)

북 콘서트 장경철교수 강진구교수: 4월 23일(주)

모든세대가 함께드리는 예배 5월 7일(주)

유아세례식 5월 7일(주)



136-073 서울 성북구 안암로 7길 66 영암교회

TEL. 924-6798 FAX. 927-9009

Young-Ahm Presbyterian Church

66, Anam-ro 7-gil, Seongbuk-gu, Seoul, KOREA

<http://www.youngahm.kr>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암교회

